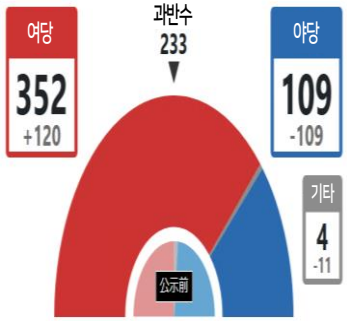
Today Chart Bond

2026. 2. 9

채권 우혜영
whydele@ls-sec.co.kr

51대 중의원 선거: 자민당 단독으로도 '압도적 다수' 의석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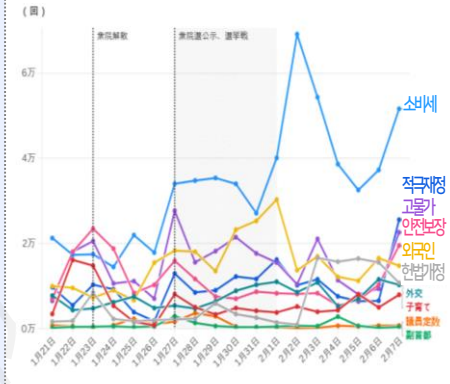


구분 (의석 수)	내용
단순 과반 (233석)	- 단독 내각 구석 가능 - 제1당이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가능
안정 다수 (244석)	- 제 1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절반 확보 가능
절대 안정 다수 (261석)	-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제1당 위원이 과반 점유 + 위원장직 독점 가능
압도적 다수(2/3) (310석)	- 헌법 개정안 표결, 국회의원 제명, 회의 비공개 등의 필요 요건 - 참의원 부결 법안 재의결 후 입법 가능

	자민	유신	중도	국민	공산	레이와	감세 유코쿠	참정	보수	사민	미라이	기타	무소속	합계
당선 (증감)	316 (+118)	36 (+2)	49 (-118)	28 (+1)	4 (-4)	1 (-7)	1 (-4)	15 (+13)	0 (-1)	0 (0)	11 (+11)	0 (0)	4 (-11)	465
소선거구	249	20	7	8	0	0	1	0	0	0	0	0	4	289
비례대표	67	16	42	20	4	1	0	15	0	0	11	0	-	176
이전 의석수	198	34	167	27	8	8	5	2	1	0	0	0	15	465

자료: 언론보도종합, LS증권 리서치센터

SNS에서 관심 높았던 테마: 소비세 > 적극 재정 > 고물가



일자	내용
2/8	중의원 선거
2월 중순	특별 국회 소집. 총리 대신 지명 선거
3/19	미일 정상회담
3월 중	FY26 예산안 중의원 가결 가능성
4월	FY26 예산안 최종 확정
6/15~17	G7 정상회의
이른 시점에..	2년간 시교품 소비세 대상 제외에 대해 초당파의 국민 회의에서 결론

Key Point

- 51대 중의원 선거 결과,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하며 '압도적 다수' 충족
  - 2009년 민주당이 정권 교체 했을 당시 획득한 최다 의석 수(308)를 상회
  - 중의원 해산부터 선거까지 16일(전후 최단기) 밖에 안 걸린 점이 승부수
- 「Today Chart(Bond): 한국·미국·일본 금리 상승 점검(2026.1.21)」에서 언급했듯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적극 재정 기조 공고해질 것
  - 이미 FY26 예산안 규모가 122조3092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나,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만큼 증액 가능성 제기되고 있음
- 예산안 증액 가능성은 채권시장 악재. 반면 자민당의 소비세 공약이 여타 당의 공약(소비세 폐지, 식료품에 대해 영구적 0% 등)보다는 보수적인 점은 호재
- 최종 예산안 확정될 때까지는 증액 및 엔화 약세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증권